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3월 31일 (제1247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걸목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4장에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한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어 천사는 “갈릴리에 계시는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눅24:6~7)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여인들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열성이었던 자들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이 누구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않았다. ‘설마~’ 했겠지. 정작 이 말씀을 믿은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였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할 것을 염려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조치하지 않았던가.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마태복음에 천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마28:5)라고 말했다듯, 많은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만을 찾고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라.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고, 뭘 해줄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산 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지 않았는가(전 9:4). 산 자라야 권세가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것들이 예수에게 복종했듯, 예수 이름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물을 명령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라. 분명히 영·혼·육이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우리 예수중심교회가 잠실학생체육관 금요철야예배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시절, 잠실학생체육관 안에 가장 크게 붙어있던 현수막을 기억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가대 바로 아래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붙어있던 현수막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본연의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국과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교단의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www.jcc.tv) 교회 소개란에 잘 나와 있듯이 우리 교회는 초

성교회 같으면 벌써 은퇴하실 연세에 다시 세계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길을 나서고 계신다. 작년 필리핀(Philippines), 페루(Peru), 일본(Japan)에 이어 올해 필리핀, 베네수엘라(Venezuela), 몽골(Mongolia), 호주(Australia), 코스타리카(Costa Rica), 파라과이(Paraguay), 우루과이(Uruguay), 그리고 또 새로이 열린 볼리비아(Bolivia)까지 수많은 선교지로 나가시려 한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

한다면 우리가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70이 넘는 연세에도 그렇게 몸을 불사르시는 것은 당신이 받은 그 날의 상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자들이, 성도들이 제발 당신을 본받아 주 앞에 서는 날, 모두가 ‘잘하였다’ 칭찬받고, 주 앞에서 서로를 자랑하며 기쁨과 환희의 파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때문이다.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 맡겨진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 이



1990년대 잠실학생체육관 집회 광경

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 실천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선교 최우선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다. 여전히 성전도 없이 체육관을 빌려, 그나마 그만 나가달라는 와중에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선교를 최우선으로 삼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멋진 성전을 가졌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면, 교회 본연의 사명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지 않은가.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중심교회 아닌가. 예수가 중심된 교회, 예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은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다시 세계 선교의 길로 나서셨다. 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16).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전도를 유독 강조하신다.

“가지 못하면 보내야 합니다. 물질을 드려 교회를 세우고, 신학생 하나 잘 키우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도 바울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주 앞에 서는 날, 당당히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나도 항상 그 날을 생각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주 앞에 서야 하고, 여러분 모두도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순간을 생각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길이다. 부활절 성찬 예배.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감격의 순간이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곧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단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행1:8)이요,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춘계산상집회

- * 기간 : 2024년 4월 15(월) ~ 18일(목)
- *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 문의 :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8:16~20)

우리 사명에 부도내지 말자

“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2024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입학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소명(召命)이 있어야 하고,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꼭 감당해야 할 사명(使命)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 형제, 처자는 물론이요, 자신의 것을 다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14:26)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3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마4:20),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은 것입니다(마4:22).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사업 걱정,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가 잠깐 가족과 인사를 나누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손에 쥘 것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9:62)고 매몰차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눅9:60)고 말씀하신 것은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떠한가 하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업의식이나
사명의식이나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내 뜻, 내 지식을 다 버리고 주군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7). 주님의 것과 상충되는 내 모든 것을 버려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3:7~9)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것을 버릴 때 예수가 발견되고, 그럴 때 예수의 명령에 오직 ‘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후1:19).

셋째, 사명자는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사명이 뭘니까? 부릴 사(使), 목숨 명(命)

입니다. 부리는 자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며칠 유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가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로 자기의 수족을 동이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
(행 21:11)
고 예언합니다.

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가지 마세요. 죽는다고요.”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행21:13). 그리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저 역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이미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었기에 낯설고 물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 입국하면 죽인다는 협박 사건,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되고 입국금지 당한 일, 의사 면허 없이 병 고친다는 광고를 낸 것이 발단이 되어 키르기스스탄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결국 추방된 일, KGB에 끌려간 사건, 한밤중 러시아 호텔 방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일, 호텔 테러 위협사건, 에스토니아 자동차전복, 칠레 고속도로 차 고장 사고, 멕시코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한 경비행기의 8시간 곡예 비행, 멕시코 호텔 잠자리에 왜 이다지도

빈대는 물어대던지...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하는 선교 일행에게 자주 말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가라.” 그러나 그들도 이미 사명자이기에 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자는 절대 충성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충성의 다른 이름은 ‘최선’입니다. 최선이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는 것’(눅10:27)입니다. 전심전력(全心全力)하는 것이 최선이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제 목회 철학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

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는 말씀으로 삼은 것은,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자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어찌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 이로라”(고전9:16).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명이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토와 아비와 처자를 뒤로 하고/ 죽음을 앞세우고 주만 따라갑니다.../ 오늘도 가렵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내일도 가렵니다/ 주의 복음 전하러” 목회 초에 이 찬양을 작사하여 7년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죽도록 충성

하다 얼른 천국에 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입니다. 이것이 제가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부도내면 큰일 납니다. 부도(不渡)란 아닐 부(不)에 건널 도(渡), 곧 건너서는 안 되는 다리입니다. 왜냐? 그 다리는 지옥으로 가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졸업장만 받지 말고
우등상을 받는 자가 되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상하신 것은 사명자에게 내 재량껏,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연장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명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손과 발이 역할이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 있듯, 분야와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명을 받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값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를 보고 택하신 것입니다. 외모나 학벌, 가문을 보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감사히 여겨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충분한 보상이 따르기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

저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30)는 약속을 온전히 믿기에 절대 충성, 절대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사명을 완수하여 그날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찬양과 경배 ::

평생 배우면서 쌓아가는 투자

올해도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자 가우탐 바이드의 <투자도 인생도 복리처럼>과 대니얼 타운, 필 타운의 <아빠와 딸의 주식투자레슨>을 소개하러 합니다. 찰리 멩거는 ‘계속 배우는 사람은 계속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많은 투자자들은 같은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항상 읽는 것을 그냥 매우 좋아했습니다.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읽는 것, 특히 효과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우주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힘을 지식을 쌓는데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멩거가 말한 대로 ‘학습기계’가 될 것입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배울 기회를 찾으면 시간이 감에 따라 지식이 복리로 누적되고, 그러면 미래에 여러 좋은 가능성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워런 버핏은 ‘부유한 사람은 시간에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에 투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가진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또한 새로운 돈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자리에 앉아서 책 한 권을 모두 읽을 시간은 없다 해도 몇 페이지 정도 읽을 시간은 있습니다. 매일 실행하면 시간이 가면서 그 페이지가 쌓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매일 일정량의 읽을거리를 부과하는 것은 뿌리 깊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가우탐이 말하는 ‘읽고,

배우고, 생각할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우탐은 바로 이것이 지혜가 복리로 늘어나는 방식이며, 자신의 시간을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은 매일매일 자신의 시간 일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독서할 시간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매일 한 시간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따로 떼어두는 것입니다. 찰리 멩거가 매일 가장 좋은 최고의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멩거는 젊은 변호사 시절에 ‘내게 가장 소중한 고객은 누구일까?’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루 한 시간을 자신에게 팔기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자신의 고객이 되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요. 하루에 한 시간씩 자신의 시간을 자신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가장 잘 투자하는 것이 곧 자신의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본받아 우리의 기도통장에 기도를 쌓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쌓는 투자를 하는 셈이지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복리로 쌓여 우리가 더욱 현명해지고 더불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미경 권사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옷이 젖는 줄 모르나 결국 옷이 젖는다는 뜻으로, 사소한 것도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딤후 4:2). 단번에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한 복음이 누군가에게 가랑비가 되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폭 젖을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나 성인이 된 후 세상에 나가 방황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학생 때 했던 신앙생활이 다 헛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금방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랑비처럼 제 삶에 스며들었던 말씀과 신앙생활 덕분에 주께 돌아온 제 삶이 더 폭 깊어 주의 은혜로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때 맞은 말씀의 가랑비는 제 삶 속 깊은 곳을 적셔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제대로 심기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몫을 잘 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고전 3:6-8). 당장에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때에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에녹 생도



:: 생명의 말씀 ::

배움이 내 삶을 운택하게 합니다

7년 전, 제가 가르치던 영어 회화 수업에 몸집이 왜소한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별처럼 달콤한 꿀을 먹는 인생이 되고파 지은 그녀의 영어 이름은 ‘Bee’. 혼자 미국에서 배낭여행 하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남편과 일찍 사별 후 자식들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시장에서 봉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딸이 성인이 되어 앞가림하게 되자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고 영어 공부에 도전하셨지요. A, B, C, D도 제대로 몰랐던 그녀는 맨 처음 어린이 영어 학습지와 인터넷 강의를 병행하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1년 반의 시간이 흐르고 문화센터에 있는 영어 회화반을 등록한 첫날, 월등한 수강생들의 눈치에 주눅이 들어 수강을 포기할까, 고민도 했었지만 이내 배움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 다과를 준비하고 부족한 자신도 도와달라고 고개를 숙인 그녀. 무시했던 자들은 그녀를 도왔고, 점차 영어에 자신감이 붙게 된 Bee는 체계적인 영어 회화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을 찾았고, 당시 초·중급반을 맡고 있던 저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첫 수업이 6시 40분이었던 그 시절,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앞자리 앉아 전날 배운 수업을 복습하고 있는 그녀와 마주하였습니다. Bee의 장점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끊임없이 영어를 사용하기, 모르는 것은 메모해 두었다가 질문하기’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테스트에 통과하여 원어민 회화반에 다다르게 됩니다. “선생님! 저 다음 달에 미국으로 배낭여행 갑니다!” 어느 날,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며 교실로 찾아와 감사 인사와 함께 소식을 전해준 Bee. 늦은 나이에 영어를 배우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녀의 상기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이루고픈 꿈이 있으신가요? 꿈에 도전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80의 나이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꿈이 그를 부지런하게 했고, 늙지 않게 하였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너는 안돼’라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생각을 바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막9:23)’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꿈에 도전하여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김진실 사모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황금률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고 힘쓴다. 장난감을 흔들어 주기도 하고, 보행기에 태워 밀어 주기도 하고, 엎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젖을 물리고, 모두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할 때가 있다. 엄마 아빠 앞에서 재물을 부리기도 하고, 심부름해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방 청소를 해놓기도 한다.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청춘남녀들은 사랑하는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아주 많이 한다. 만만치 100일이 되는 날, 장미꽃 100송이를 선물한다든지, 예쁘게 손편지를 써 초콜릿과 함께 예쁘게 포장하여 선물한다든지. 청춘남녀들이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쁨을 주면 그 기쁨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뻐한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가 상 받아왔으니, “치킨 시켜 줄까? 아니면 피자 시켜 줄까?” 한다. 내가 기쁨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

렸더니 그 기쁨이 피자가 되어 돌아오고, 치킨이 되어 돌아온다. 그날 그 집에서는 치킨과 피자를 먹으면서 온 식구가 기뻐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지요 선지자니라”(마 7:12)를 황금률이라 한다. ‘대접’이란 말씀은 다른 말로 ‘존중’이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한다. 미국에서 설령탕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었다. 어느 날 손님이 깎두기 좀 더 달라 한다. 바빠서인지 잊었는지 깎두기가 오지 않자, “야! 왜 깎두기 안 가져와?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며 소리를 지른다. 그 학생 왈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 줄은 아십니까?”, “네가 누군데?”, “나는 깎두기를 빨리 갖다 줄 수도 있고 늦게 갖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존중하라는 것이 황금률이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자.

임택합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빛이 되리라 ::

건강으로 보답합시다

김장호 씨는 3년 전 술을 마시다 쓰러져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오랫동안 마셔온 술 때문에 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져 있었죠. 결국 첫째 딸에게 간을 이식받았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퇴원한 그는 또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작년에는 둘째 딸의 간까지 이식받게 되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기 전날에도 그는 술을 마셨고, 지난주에는 연속 5일 동안 새벽까지 마셨죠. 검진 결과표에 드러난 그의 간 상태는 무척 나빴습니다. 담당 의사는 화를 간신히 억누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간 기증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다. 예전에는 간 수술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기증자도 목숨 걸고 하는 수술이예요. 딸 둘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라고요. 또다시 간이 망가져서 오시면 제가 어떻게 수술합니까. 또 술 마실 게 뻔한 사람예요. 저는 앞으로 환자분의 수술도, 진료도 못합니다. 저한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2>의 한 에

피소드입니다. 딸들에게 두 번이나 간 이식을 받고도 계속 술을 마시는 김장호 씨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실제로 매일 약 6명의 환자들이 이식을 기다리다 기증자를 만나지 못해 사망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다는 건 기적과도 같죠. 기증자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몸을 정성껏 돌보는 일, 다시는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목숨 다해 관리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김장호 씨와 다른 사람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이나 콩팥 같은 장기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점이 무참히 뜯겨나가는 채찍을 감내하신 건 우리가 병에서 놓임 받아 건강하게 살기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나

음을 입은 우리 몸을 잘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선택 사항이 아니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것과 같은 크리스천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올해 저는 몸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를 끊고 몸에 좋은 한 가지를 추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빵과 과자, 탄산음료, 젤리 등을 즐겨 먹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덜 좋아하는 탄산음료만이라도 끊기로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탄산음료를 입에 대지 않고 있는데 몸도 마음도 기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계단 오르기를 추가했습니다. 출근할 때 10층에 있는 제 자리까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몸에 나쁜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긴 쉽지 않겠지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을 잘 보살피고 관리해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수명을 사는 동안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올해 건강을 위해 여러분이 끊고 싶은 한 가지,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신은혜

:: 짧은 이야기 ::

빈 계란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에 여덟 살 난 톰이란 소년이 있었다. 그는 병약하여 늘 휠체어에 실려 교회에 나왔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주며, 무엇이든 ‘생명’을 가리키는 것을 넣어요

라고 했다. 드디어 부활주일, 아이들은 꽃과 나무, 곤충들을 그 안에 담아왔다. 이제 톰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톰이 선생님께 내민 계란은 비어 있었다. 선생님은 톰이 아파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 여겨 “괜찮아, 톰.” 했더니, 톰은 밝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무덤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생명이거든요.” 톰은 10개월 후 하늘나라로 갔고, 그의 무

덤에는 꽃 대신 빈 계란이 놓였다. 세상에는 공자의 무덤도 있고,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다. 많은 성인들이 사람을 가르치고 깨닫게 했다. 그러나 참 생명을 가르치진 못했다. 새가 다시 새알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나비가 고치 속으로 들어갈 수 없듯, 예수를 다시 무덤 속으로 넣을 수 없다. 그러니 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하여 참 생명을 얻으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눅24:7).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세상의 소금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읍니다.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눈으로도 봅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새로운 뉴스가 쏟아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화제와 이슈를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됩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싹틔웁니다.

누군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손해를 입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외칩니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손해 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정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에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때로 눈속임과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지하면 십 리를 가라 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십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하고 진실되며,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경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히게 된다고 합니다(마5:13).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 수 없습니다. 싱거운 음식에 간을 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싱겁습니다. 당한 만큼 복수하는 것은 뻔한 전개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일은 흔합니다. 세상의 일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뻔

하지 않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싱거운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으며 짠맛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짠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없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따르게 됩니다. 시류라는 물살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를 때 세상 속에서 진정한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전소희

so2eej@naver.com

늘 체크하자!

신앙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냥 내 눈앞에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돈 많고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보이고, ‘나는 대체 왜 이렇게?’ 하며 감사하지 못하게 되곤 한다.

감사할 수 없는데 더더욱 기쁠 수가 없다.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게 당연한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남들과 다투게 되는 것은 사실 서운함 때문이 많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서운함을 느끼면 고치려 들고 불평하다 원망도 하게 된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럴만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지나가면 사실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순간엔 그게 잘 안되는 게 현실이다. 서운함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란 걸 깨닫지 못한 경우다. 성경 어디에 서운하란 말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다. 그러기 위해선 늘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순간 어두움이 찾아오고, 잠시 애통의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 내가 지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스스로를 늘 체크하고 점검해 늘 하나님을 바라며 기쁘게 살아가는 최고의 영적 상태로 만들어 가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장명훈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
(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노랑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